

MEKONG TIMES



2026년 4월, 베트남을 바꿀 3대 투자가 동시에 시동 걸렸다

3면



베트남을 달릴 고속철도들 5대 노선 착공 현황과 투자 구조 해부

30시간 걸리던 하노이-호치민이 5시간으로 단축된다.

베트남이 2024년 말 국회에서 총 \$676억 규모의 남북 고속철도를 전격 승인한 이후, 중국 연결 3개 노선까지 포함하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투자 총액은 아시아 최대급 프로젝트 반열에 올랐다....

8면



K-뷰티, 베트남을 접수하다 샤넬을 밀어낸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령 해부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 명품이 한국 화장품에 자리를 내줬다

2019년만 해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최강자는 로레알·랑콤·샤넬로 대표되는 유럽 명품이었다. 점유율 28%로 한국(20%)을 8%p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2년 역전이 일어났다....

12면



거품 한 겹이 세계를 바꿨다 에그커피와 베트남 카페 문화의 진화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와 함께 산다.

새벽 5시 반, 하노이 골목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그만 금속 드리퍼(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베트남 커피 문화의 본질이다. 서두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

15면



신한은행

사업자님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신한은행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맥시마이즈 계좌 이용시
계좌 잔액에 최대 연 3%
이자 적용

사업자 전용 카드 사용 시
카드이용 금액의 최대 5% 적립 및
POS 매출의 최대 0.5% 적립

타행 POS 단말기, 신한
전환 시 기존 대비 낮은
MDR 제공



문의 :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1900-4478
홈페이지 : www.shinhan.com.vn

신한금융그룹 In Vietnam

 Shinhan Bank  Shinhan Finance  Shinhan Securities  Shinhan Life  Shinhan DS

2026년 4월, 베트남을 바꿀 3대 투자가 동시에 시동 걸렸다

삼성 반도체 \$40억 · 다낭 항만 \$20억 착공 · 한-베 원전 MOU — 반도체·물류·에너지 3축이 동시 점화



4월 한 달이 베트남 투자 역사를 다시 썼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하노이 국빈 방문(4.22)이 기폭제가 됐다. 반도체·항만·원전 - 서로 다른 세 분야의 투자가 불과 사흘 사이에 잇달아 확정됐다. 합산 규모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들은 베트남의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국가 전략 프로젝트들이다.

엔씨에우 컨테이너항 착공식을 개최했다. 머스크(Maersk) CEO 뱅상 클레르크가 직접 현장에 참석했다.

8개 선석(2,750m), 1만 8,000TEU급 초대형선 수용, 연간 570만 TEU 처리 용량을 갖춘다. 라오스·태국·미얀마를 잇는 동서경제회랑(EWEC)의 동쪽 종착점으로, 대륙-해양을 잇는 물류 전략 거점이 된다. IoT·AI·자동화를 접목한 스마트항만, 청정에너지 기반의 그린항만으로 설계됐다.

다낭시는 배후 6차선 해안도로(1,200억 동)와 국철 연결 인프라를 병행 구축한다. APM터미널스 CEO는 "다낭을 베트남 무역의 고성능 관문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베트남 중앙정부는 공유 인프라에 3,000억 동을 직접 지원한다.

▶ 시사점 베트남 중부 기업들의 수출 물류비 대폭 절감 예상. 한국 물류·항만 IT 기업에 기술협력 및 기자재 수출 기회가 열렸다.



▲ 2026년 4월 베트남 3대 주목 투자 규모 비교 | 출처: Bloomberg · VnExpress · APM Terminals (2026.04)

투자 ① 삼성전자, 타이응웬 반도체 패키징 공장 \$40억 확정

베트남 역대 최대 단일 FDI 프로젝트

투자 규모: \$4.0B | 위치: 타이응웬성 | 결정: 2026년 Q1

삼성전자가 베트남 타이응웬성에 4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2026년 Q1 기준 베트남 역대 단일 FDI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AI 가속기·데이터센터용 첨단 패키징(FC-BGA·HBM 계열)에 집중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타이응웬·박닌 두 곳에 생산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번 패키징 공장은 두 거점을 잇는 밸류체인 완결에 해당한다. 2008년 베트남 첫 공장 이후 18년 만에 삼성의 연간 매출이 베트남 GDP의 13%에 달할 만큼 양국 경제의 연결고리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베 정상회담에서 또 람 주석은 "반도체·AI 기술 이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직접 요청했으며, 삼성의 투자 확정은 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화답이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양국 교역 규모는 연간 900억 달러를 넘는다.

▶ 시사점 삼성 협력사의 베트남 동반 진출 가속화 예상. 타이응웬 인근 산업단지지가 상승과 반도체 엔지니어 수요 급증이 불가피하다.

투자 ② 리엔찌에우 컨테이너항 착공 - APMTerminals·하테코 \$20억 투입

베트남 중부 최초 대형 심해 항만, 동서경제회랑의 바다 관문

투자 규모: \$1.7B(민간)+정부 지원 \$0.3B | 위치: 다낭 하이반 | 착공: 2026.4.25 | 1단계 가동: 2029년

4월 25일, 세계 최대 항만 운영사 APM터미널스(덴마크)와 하테코그룹이 다낭 리

투자 ③ 닌투언2 원전-한-베 MOU 체결, 팀코리아 수주전 본격화

KEPCO·수출입은행·KSURE + PVN, 개발·금융협력 MOU 2개 서명

총 사업비: \$200~250억 | 위치: 닌투언성 빈하이 | MOU: 2026.4.22 | 목표 가동: 2036~2040년

4월 22일, KEPCO·수출입은행·KSURE와 페트로베트남(PVN)이 닌투언2 원전 개발협력·금융협력 MOU 2개를 전격 서명했다. 2016년 원전 계획 중단 이후 10년 만에 한국이 다시 베트남 원전의 주역으로 복귀했다.

일본이 2026년 1월 공식 철수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 파트너다. G2G(정부간 협약) 방식으로 추진돼 공개 입찰 없이 진행된다. UAE 바라카 원전(5.6GW) 완공 실적과 2012년 APR-1400 타당성조사 선례가 핵심 경쟁력이다. 웨스팅하우스 IP 분쟁은 2026년 1월 합의로 종결돼 APR-1400 수출의 법적 걸림돌도 해소됐다.

핵심 변수는 2026~2027년 IGA(정부간 협약) 체결 성공 여부다. 수출입은행은 자금 조달 구조 설계를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IGA가 체결되면 KHNP·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의 수주가 연쇄 확정된다.

▶ 시사점 IGA 체결 시점이 한국 원전 관련주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닌투언2 수주 성공 시 한국 원전 산업 전체의 제2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편집부 평가.

반도체(제조)·항만(물류)·원전(에너지) - 베트남의 산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세 축이 2026년 4월 한 달 안에 동시에 점화됐다. 공교롭게도 셋 모두 한국이 핵심 파트너다. 베트남을 향한 한국의 투자 포지션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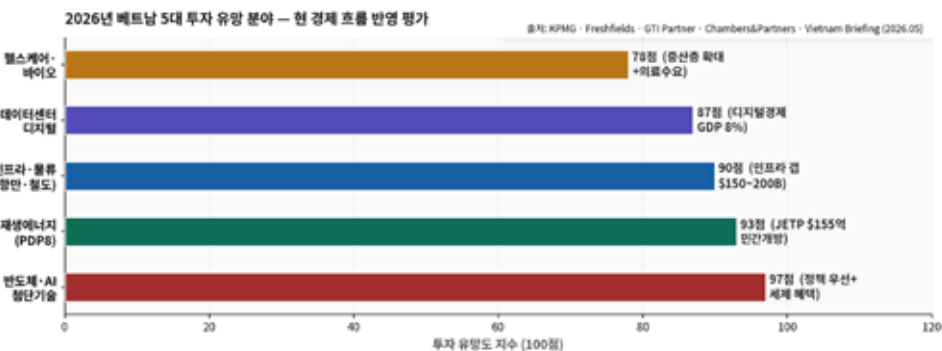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 VnExpress International · APM Terminals · Korea Eximbank · FMT · The Investor VN (2026.04)]

2026년 하반기, 지금 진입해야 할 5대 분야

글로벌 최저세·FTSE 편입·이란전쟁·일본 정상 방문 — 4가지 변수가 동시에 만든 투자 지형도

2026년 베트남 투자 환경은 전혀 없는 복합 변수가 맞물리고 있다.

글로벌 최저세(GMT) 15%로 단순 저세율 우대 시대가 막을 내렸고, 9월 FTSE 신흥시장 편입으로 60~80억 달러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베트남의 에너지 자립 욕구를 역설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투자 기회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 "저비용" 대신 "전략적 가치"가 선택 기준이 됐다.



▲ 2026년 베트남 5대 투자 유망 분야 — 현 경제 흐름 반영 평가 | 출처: KPMG • Freshfields • GTI Partner • Chambers&Partners (2026.05)

★★★ 1위 반도체·AI - 국가가 직접 키우는 산업

2026.1.1 시행 디지털기술산업법 • R&D 150% 공제 • 패스트트랙 250~300일 단축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AI를 "특별 우선 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전자(\$40억)·인텔(\$15억)·아모르테크(\$16억)가 줄줄이 확정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진입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GMT 도입으로 세율 메리트는 줄었지만, R&D 비용 150% 공제와 ISF(투자지원펀드) 현금 보조가 이를 상쇄한다. 다낭 DSAC·박닌·타이응웬 클러스터가 3대 진입 거점으로 자리잡았으며,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 5만 명 양성 계획으로 숙련 노동력도 뒷받침된다.

▶ 진출 포인트 설비센터·패키징 부품 협력사로의 진입이 현실적인 첫 단계. 다낭 DSAC 레디빌트 공장 단기 임차로 리스크를 낮춰 파일럿 시작 권장.

★★★ 2위 재생에너지 - 이란전쟁이 만든 역설적 기회

PDP8 해상풍력 17GW 목표 • JETP \$155억 지원 • DPPA 민간 직거래 허용

중동 에너지 위기가 역설적으로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 민간자본이 직접 발전소를 짓고 대기업에 전력을 팔 수 있다.

2026년은 PDP8 실행 원년이다. 태양광 현재 20GW → 2030년 36GW, 해상풍력 0.5GW → 17GW로의 도약이 목표다. DPPA(직접전력구매협약) 시행으로 삼성·인텔 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B2B 시장이 열렸다. JETP(공정에너지 전환) 155억 달러 공공·민간 자금과 탄소크레딧 시장(2029년 정식 운영)이 투자 수익성을 추가로 높인다.

▶ 진출 포인트 IPP(독립발전사업자)로 입찰 전 현지 파트너사(EVN 협력사)와 합작법인 구성이 관건. DPPA 계약을 확보한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가장 안정적인 진입 구조다.

★★★ 3위 인프라·물류 - \$150~200억 펀딩 갭이 곧 기회다

룽탄공항 개항 • 리엔찌에우항 착공 • 남북고속철도 \$580~670억

베트남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2030년까지 1,500~2,000억 달러인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민간자본의 공간이 그만큼 넓다.

적도항행 방해로 아시아 항로가 재편되면서 베트남 항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룽탄공항 2026년 말 개항, 리엔찌에우항 2029년 1단계 운영이 물류 허브 완성을 앞당긴다. 레디빌트 팩토리(RBF)·레디빌트 웨어하우스(RBW) 시장은 그린필드 대비 설립 기간이 18~24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돼 속도 경쟁에서 압도적이다. 산업용지 시장 규모는 2026년 80억 달러, CAGR 6~8%로 성장 중이다.

▶ 진출 포인트 남부(호치민-빈즈엉-동나이) 산업단지 포화로 중부(다낭·후에)·북부(홍옌·박닌) 진출이 현실적. RBF 임차 후 확장 전략이 초기 리스크 최소화 유 효하다.



★★☆ 4위 데이터센터·디지털 인프라 — 동남아 디지털 허브 경쟁 본격화

데이터센터 시장 2025년 \$11~13억 → 2030년 \$35~40억 • 디지털자산법 2025.9 시행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알리바바·G42가 동시에 베트남 데이터센터를 노린다. AI 인프라 수요 폭발과 디지털경제 GDP 8% 달성 목표가 배경이다.

호치민 국제금융센터(IFC) 착공과 G42·FPT 컨소시엄의 \$20억 AI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제안이 시장의 온도를 보여준다. 베트남은 2025년 9월 디지털자산법을 시행, 암호화폐 거래소 파일럿 라이선스를 도입하면서 핀테크 창업 생태계도 급속히 성장 중이다. FTSE 신흥시장 편입으로 자본시장 유동성이 깊어지면 데이터센터 REITs 구조도 현실화된다.

▶ 진출 포인트 Tier III/IV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전문 기업, AI 엣지컴퓨팅,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가장 빠른 진입 루트다.

★★☆ 5위 헬스케어·바이오 — 중산층 확대가 만드는 신시장

제약 시장 2026년 \$80억 • 243개 WHO-GMP 공장 • 한-베 의약 MOU 체결 • 베트남 인구 1억 명 중 중산층이 2026년 26%로 확대된다. 의료 서비스와 제약 수요 증가는 구조적·장기적 흐름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문으로 한-베 식품·의약·의료기기 안전협력 MOU가 체결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243개 WHO-GMP 인증 공장 보유로 CDMO(위탁개발·생산) 진출 기반이 탄탄하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임상 비용이 한국의 30% 수준으로 R&D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베트남 정부는 mRNA 암 백신 국제 임상시험 참여도 2026년 공식 선언한 상태다.

▶ 진출 포인트 제네릭 파트너십·CDMO 진출이 초기 단계. 한국 중견 제약사의 현지 합작법인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편집부 평가.

2026년 하반기 베트남 투자 키워드는 단 하나다: "전략적 가치 창출". 저세율·저임금 시대는 끝났지만 국가가 육성하는 산업·자본시장 개방·인프라 갭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5년 후를 선점한다.

[출처: KPMG Vietnam 2026 Outlook • Freshfields • GTI Partner • Chambers&Partners • Vietnam Briefing • The Investor VN • LSEG • Acclime (2026.05)]

VN-Index 1,854p • FTSE 편입 D-139일

지금 베트남 자본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년 새 +49.5% 상승 • 외국인 순매도 지속 • 9월 21일 신흥시장 편입 임박 - 역설의 시장을 해부한다



숫자가 말하는 것과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긋나 보인다.

VN-Index는 4월 29일 1,854포인트를 기록하며 1년 전 대비 49.5% 올랐다. 아시아 최고 성과를 낸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외국인은 올해 내내 팔고 있다. 이 역설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9월 21일 FTSE 신흥시장 편입을 앞둔 지금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VN-Index 4월 29일	FTSE 편입 D-Day	2026년 전망 P/E
1,854p +49.5% YoY	D-139일 9월 21일 공식 적용	12.7배 역사 평균 하회 → 저평가

■ 지수는 오르는데 외국인은 판다 - "전술적 이탈" vs "구조적 이탈"

4월 15일 하루 외국인 순매도 1억 3,300만 달러.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2025년 FTSE 편입 기대감으로 미리 매수했던 헤지펀드들의 차익실현. 둘째, 이란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달러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 셋째, USD/VND 26,335 수준의 환율 약세로 달러 기준 수익률 압축.

그러나 이것은 구조적 이탈이 아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기관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며 지수를 받쳐왔고, SSI리서치는 "9월 편입 직전 외국인의 재매수 전환"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HSBC는 "전형적인 뉴스에 사서 편입에 파는 패턴"으로 규정했다.

■ FTSE 편입 D-139일 - 60~80억 달러가 움직인다

4월 7일 FTSE 러셀이 9월 21일 공식 편입을 최종 확정했다. 베트남이 2018년 관찰대상국 편입 이후 8년 만에 신흥시장으로 승격되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월드뱅크는 편입 후 추가 유입 자금을 최대 250억 달러로 추산하며, HSBC·VanEck는 단기 패시브 자금만 60~80억 달러를 예상한다. VN30 주요 수혜주는 빈흠스(VHM)·빈그룹(VIC)·FPT·하오팻(HPG)·비엠클뱅크(VCB)다. 단, CCP(중앙청산소) 완전 가동은 2027년 Q1이며, ESG 공시 비율(25%)과 외국인 지분 한도(FOL) 제약은 아직 남아 있다.

■ SBV 기준금리 4.5% 동결 - 성장과 환율 사이의 외줄타기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했다. 신용성장 목표 15%를 달성하면서 VND 약세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구조다.

인터뱅크 단기금리는 1주일 5.3%로 연초 급등 후 안정을 되찾았다. 10년 국채금리는 3.85%로 소폭 상승세이며, 시장총액은 2,450억 달러로 GDP 대비 약 48%다. 2026년 기업 이익 성장률 전망은 14.5% YoY로 P/E 12.7배는 역사 평균을 하회하며 저평가 구간이다.

외국인 FOL 한도 내 블루칩, 또는 한국 상장 베트남 ETF(미래에셋·KB·삼성)가 9월 편입을 앞둔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접근법이다. FTSE 편입 패시브 자금 유입은 ETF에도 연쇄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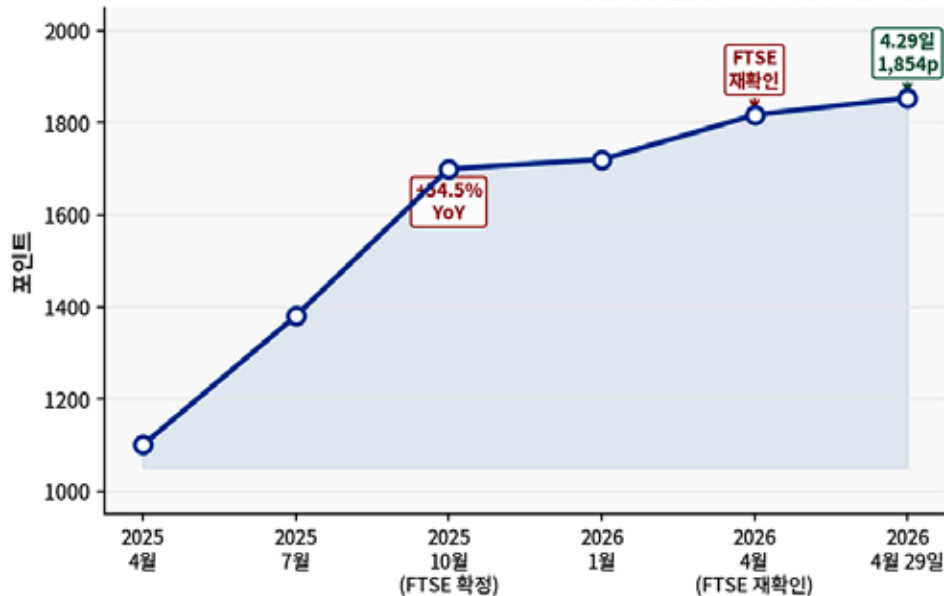
편집부 평가.

VN-Index의 역설 - 외국인이 팔수록 지수가 오르는 이 구조는 내국인 자본이 성숙했다는 증거다. 9월 21일 이후 60~80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 시장의 무게 중심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그 직전이다.

[출처: Trading Economics · Vietnam Briefing · SSI Research · HSBC · LSEG · VanEck · The Shiv · World Bank (2026.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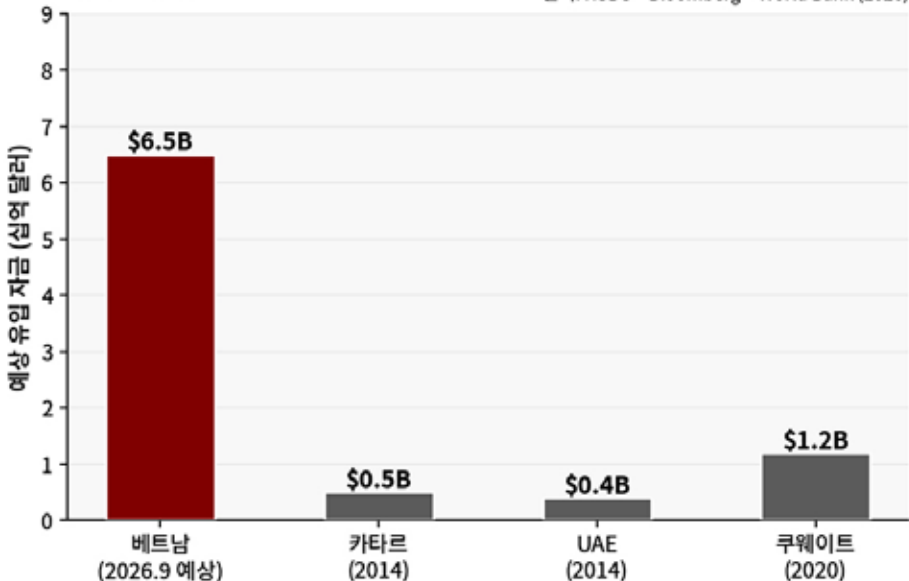
VN-Index 1년 추이 (2025.4~2026.4.29)

출처: Trading Economics · VNDirect (2026.04)



FTSE EM 편입 국가별 자금 유입 비교

출처: HSBC · Bloomberg · World Bank (2026)



▲ VN-Index 1년 추이 (2025.4~2026.4) | FTSE EM 편입 국가별 자금 유입 비교 | 출처: Trading Economics · HSBC · Bloomberg (2026.04)

"더 버는데 더 신중하게 쓴다"

베트남 소비자 행동의 대전환, 2026년 핫이슈 해부

Q1 소매판매 +10.9% · 서비스·경험 소비 +18.5% · 소셜커머스 급부상 · "가치 최적화" 세대의 탄생

소득이 늘었는데 지갑은 더 조심스럽게 열린다.

2026년 베트남 소비자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가치 최적화(Value Optimization)"다. Q1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10.9%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내용이 달라졌다. 물건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시장 조사기관 시미고(Cimigo)는 이 현상을 "소비의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Q1 소매판매 성장률	이커머스 비중	월 평균 소득 증가
+10.9% GDP 7.83% 성장 동반	12% 소셜커머스 포함 24%	+8.5% 900만 동 → 구매력 확대



가 없으면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가 26%에 달한다. 둘째, 브랜드 충성도가 무너졌다. 더 좋은 가치를 주는 경쟁 브랜드로 즉시 이동한다. 셋째, 프리미엄 제품은 "가치가 명확하게 증명될 때만" 팔린다. 가치 설명 없는 프리미엄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물건보다 경험" - 서비스 소비 +18.5%의 의미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 항목은 상품이 아니다. 여행·외식·레저·웰니스 등 "경험 소비"가 모든 상품 카테고리를 압도한다.

Q1 기준 서비스·경험 소비 성장률은 18.5%로 전체 소매판매 성장률(10.9%)의 두 배에 육박한다. 국제 관광객 880만 명 유입이 F&B·숙박·여행 서비스 수요를 직접 견인하는 동시에, 베트남 내국인도 "외식·여행·뷰티 서비스"에 지출을 늘리고 있다. 대신 가전·의류 등 내구재 성장은 둔화됐다. "물건을 갖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세대 전환이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맥킨지는 "2035년까지 베트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글로벌 중산층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험 소비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소셜커머스의 폭발 - 라이브쇼핑이 소매 판도를 바꾼다

틱톡샵 라이브 방송 하나가 24시간 내에 오프라인 매장 한 달 매출을 뛰어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소셜커머스가 단순 채널을 넘어 소비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다.

2026년 이커머스와 소셜커머스를 합산한 온라인 소매 비중은 전체의 24%에 달한다. 2020년 10%에서 6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었다. 쇼피·라자다 이커머스(12%)와 틱톡샵·페이스북 라이브 소셜커머스(12%)가 이제 같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통 재래시장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44%로 급락했다. 이 채널 재편의 핵심 수혜자는 소동이 빠르고 라이브 방송에 익숙한 브랜드들이다. NielsenIQ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매 결정의 72%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 편집부 평가 - 베트남 소비시장,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베트남 소비자는 성장했지만 단순하지 않다. 더 많이 벌고, 더 신중하게 쓴다.

"가치 최적화" 소비자를 잡으려면 가격이 아닌 "왜 이 제품이 더 나은지"를 설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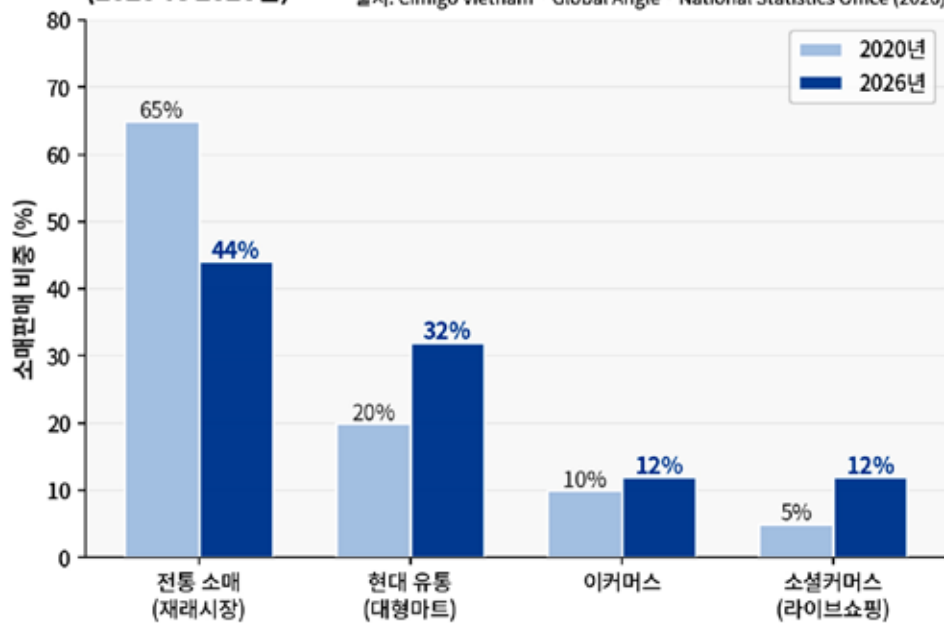
경험 소비(+18.5%)가 상품 소비를 앞선다. 한국 기업의 기회는 F&B·여행·웰니스·뷰티 서비스에 있다.

소셜커머스 없이는 베트남 MZ세대에 닿을 수 없다. 틱톡샵 라이브가 지금 가장 빠른 진입로다.

[출처: Cimigo Vietnam Consumer Trends 2026 · Global Angle Q1 Report · NielsenIQ Vietnam · McKinsey Vietnam · Vietnam Briefing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2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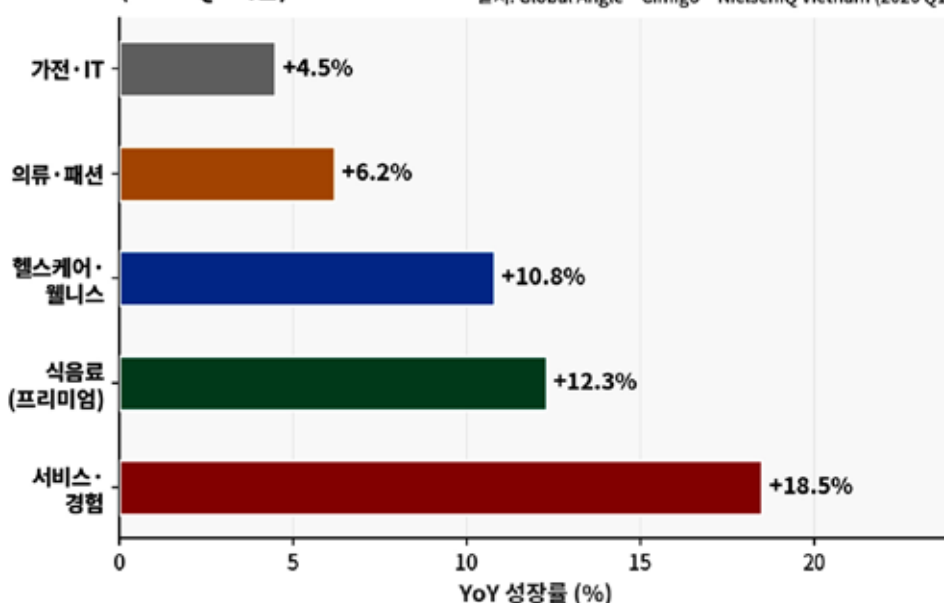
소매 채널 구조 대전환 (2020 vs 2026년)

출처: Cimigo Vietnam · Global Angle ·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26)



소비 항목별 성장률 (2026 Q1 기준)

출처: Global Angle · Cimigo · NielsenIQ Vietnam (2026 Q1)



▲ 베트남 소매 채널 구조 대전환 (2020 vs 2026) | 소비 항목별 YoY 성장률 (Q1 2026) | 출처: Cimigo · Global Angle · NielsenIQ · National Statistics Office Vietnam (2026)

■ 이번 주 핫이슈 - "가치 최적화" 소비 혁명, 브랜드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 명성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 가격에 이 가치를 받는가"를 직접 계산한다.

시미고 2026 보고서는 이 변화를 "행동적·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했다. 1인당 GDP 4,900달러로 성숙 시장 소비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 3가지: 첫째, 프리모션이 전술이 아닌 일상이 됐다. 쇼피·라자다 할인 행사



ONE SERVICE

베트남 진출, 원스톱 솔루션 원서비스로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 설립부터 HR, 세무·회계까지 한 번에 해결!

- ✓ 법인 설립 & 비즈니스 컨설팅
 - 외투법인, 현지법인, 외투전환 설립
 - 사업자 등록, 법인 도장, 초기 세금 신고
- ✓ 세무·회계 관리
 - 월별 세금 신고 & 기장 대행
 - 연말 정산, 재무 보고서, 전자 세금계산서
- ✓ HR & 직원 관리 서비스
 - 직원 채용 & 급여 관리 (현지 & 한국어 가능 인력)
 - 노동허가서 & 사회보험, 아웃소싱 지원
- ✓ 비즈니스 컨설팅 & 행정 업무 대행
 - 공증, 번역 서비스 & 법률 준수 컨설팅
 - 공항 VIP 패스트트랙 (입국 \$18 / 출국 \$25)



원서비스는 다릅니다!

- ✓ 10년 이상의 베트남 법률·세무·HR 경험
- ✓ 한국 기업 맞춤형 컨설팅 & 신속한 대응
- ✓ 투명한 비용,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상담 및 문의

전화: 08-3333-1004

이메일: simon@oneservice.group

주소: 65 Dang Nhu Mai, Phuong Thanh
My Loi, Thanh pho Thu Duc, HCMC

카카오톡: ONESERVIC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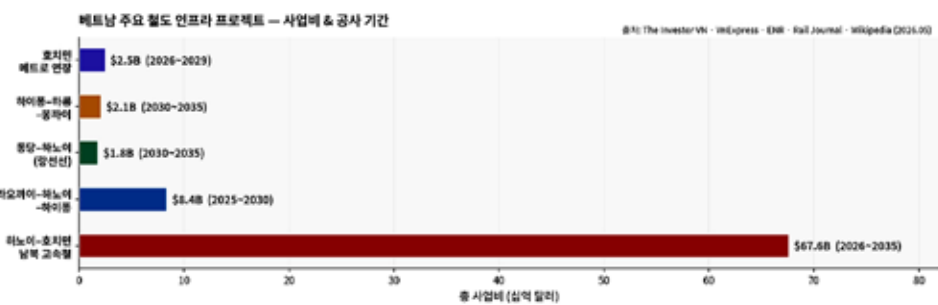




베트남을 달릴 고속철도들 5대 노선 착공 현황과 투자 구조 해부

30시간 걸리던 하노이-호치민이 5시간으로 단축된다.

베트남이 2024년 말 국회에서 총 \$676억 규모의 남북 고속철도를 전격 승인한 이후, 중국 연결 3개 노선까지 포함하면 베트남의 철도 인프라 투자 총액은 아시아 최대급 프로젝트 반열에 올랐다. 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도시와 산업단지의 부동산 지형은 착공 전부터 이미 요동치고 있다.



▲ 베트남 주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 — 총 사업비 & 공사 기간 | 출처: The Investor VN • VnExpress • ENR • Rail Journal (2026.05)

① 최우선 국가 사업 하노이 → 호치민 남북 고속철 (1,541km)

총 사업비 \$67.6B | 최고속도 350km/h | 착공 2026년 말 | 완공 목표 2035년
베트남 역사상 최대 단일 인프라 프로젝트. 2024년 11월 30일 국회 승인 후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전방위 준비가 진행 중이다.

노선: 하노이 응옥호이역 → 호치민 투티엠역. 15개 성·시 통과, 23개 여객역·5개 화물역. 표준궤(1,435mm) 복선, 현재 30시간 소요를 5시간으로 단축. 주체: 건설부(주무), 탕롱 프로젝트관리위원회(발주). 투자 구조: 전액 공공투자(국채+정부예산). 민간 PPP는 부분 검토 중. 기술 컨설팅: 스페인 Ineco(2026.1.30 계약). 4~5개 중국 대형 시공사 컨소시엄+베트남 기업 합작 입찰 진행 중. Vingroup은 2024년 말 투자 등록 철회. 호아팻(Hoa Phat)은 고속철 레일 전용 철강 공장(약 \$4.1억) 착공. 2026년 6월 한-베 공동 타당성 평가 → 8월 완료 → 9월 총리 승인 → 11월 시공사 선정 목표.

② 중국 연결 1호선 라오까이 → 하노이 → 하이퐁 (403km)

총 사업비 \$8.37B | 설계속도 160km/h(하노이 구간 120km/h) | 착공 2025년 말 | 완공 목표 2030년

중국 윈난성 쿤밍과 하이퐁항을 잇는 전략 노선. 2025년 2월 국회 승인 후 사실상 베트남 최초 착공 고속(준고속) 철도다.

노선: 라오까이역(중국 허커우역 연결) → 하노이 → 하이퐁 락후옌항. 9개 성·시 통과. 표준궤 단선 전철화. 여객+화물 겸용. 주체: 교통부·건설부 공동. 투자 구조: 국가예산(중앙+지방) + 중국 정부 ODA/우대차관. CREC(중국철도공사) 6호 그룹 등 중국 시공사 우선 협상. 2025년 4월 베-중 철도협력 공동위 MOU 체결.

시공 중 창출 일자리 약 9만 명. 하이퐁 리엔찌에우 컨테이너항과 직결 → 물류 시너지 최대.

③ 중국 연결 2호선 동당(랑선) → 하노이 (156km)

총 사업비 약 \$1.8B(추산) | 중국 표준궤 연결 | 착공 목표 2030년 이후 | 현재 타당성 조사

베트남-중국 국경 동당역에서 하노이를 잇는 두 번째 대중 연결선. 2025년 4월 체결된 베-중 철도협력 협정에 포함된 3개 노선 중 하나다.

노선: 동당역(중국 평양역 연결) → 하노이. 주체: 교통부(베트남) + 중국 국가철도그룹 공동 타당성 조사 중. 투자 구조: 미정(ODA+민자 혼합 검토). 현재 기존 미터궤 노선이 운행 중이며, 표준궤 신선으로 교체해 중국 고속철과 직결 연계하는 방식으로 계획됨. 판아시아 철도망(쿤밍-싱가포르) 동부 루트의 핵심 구간으로 장기 전략적 가치가 크다.

④ 그 외 진행 중인 주요 노선

노선	사업비	공사 기간	현황
하이퐁 - 하롱 - 몽까이	\$2.1B (추산)	2030년 이후	중국 연결 3번째 노선. 타당성 조사 중
호치민 메트로 2호선 (깐저 방향 연장)	\$2.5B	2026~2029년	현대로템 차량 수주. 호치민 이재명 방문 체결
호치민 - 깐터 고속도로 (철도 병행 검토)	미정	검토 단계	메콩 델타 물류 개편과 연계
하노이 광닌-하이퐁 (광닌 신선)	\$5.6B	2026~2028년	광닌~하이퐁 23분 단축. 2026 Q2 시공사 선정

편집부 평가.

베트남의 철도 투자 총액은 \$82억(라오까이선 착공 기준)에서 남북 고속철 포함 시 \$150억을 넘는다. 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하이퐁·박닌·다낭·동나이의 부동산과 산업용지는 착공 전부터 이미 15~25% 선반영 상승을 보이고 있다. 철도는 단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부동산 지형 자체를 다시 그리는 설계도다.

[출처: The Investor VN • VnExpress International • ENR • Rail Journal • Wikipedia • Vietnam Briefing • Global Times • Nation Thailand (2025~2026.05)]

"AI 교육" 열풍의 실체를 묻는다 베트남은 지금 AI를 배우는가, AI를 만드는가

글로벌 AI 인재 수요-공급 격차 3.2:1 • AI 에이전트 개발자 "거의 전무" • AI 리터러시와 AI 엔지니어링의 간극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베트남 전역의 교실에서 AI 수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호치민시 교육국이 2026년 1월 AI 교육 파일럿을 공식화하고 2026~2027학년도 전국 전면 도입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것을 "디지털 전환의 완성"이라 부른다. 그러나 현장을 들여다보면 불편한 질문이 남는다. "베트남이 가르치는 AI는 무엇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나?"

■ AI 교육의 실체 - 리터러시 교육인가, 엔지니어링 교육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베트남 학교에서 가르치는 AI는 "AI 리터러시"다. AI 시스템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는 AI 기기 체험, 중학교는 알고리즘·데이터 개념 이해, 고등학교는 AI 시스템 설계 개요를 목표로 한다. 주된 방식은 컴퓨터 수업에 통합 편성이며 독립 과목이 아니다. Khan Academy의 AI 교육 도구 Khanmigo가 교사 보조 도구로 배포됐고, 베트남교육과학연구원장 레 안 빈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초등은 AI와 친해지기, 중등은 사고력 훈련, 고교는 AI 응용 창작"이 목표라고. 요약하면 지금의 AI 교육은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지, "AI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 베트남 AI 현주소 - "꿈은 크고 에이전트 개발자는 없다"

"데모는 만들 수 있지만 수백만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전혀 다른 문제다." - AI Hay CTO 응우옌 토 쯔영

베트남 국립대 정보기술연구소가 2025년 100개 조직을 조사한 결과, AI 공급업체의 45%가 "고급 인재 부족"을 최대 장벽으로 꼽았다. 컴퓨팅 인프라 부족(23%)의 두 배다. 2026년 IT 인력은 53만 명이 예상되지만 AI 에이전트 개발·MLOps·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실전 AI 직군 공급은 사실상 전무하다. 글로벌 AI 인재 수요-공급 격차는 3.2:1이며 1,600만 개 AI 직종 중 자격자는 51만 8천 명뿐이다. 여기에 싱가포르·태국이 베트남 상위 5% 엔지니어를 적극 유인하는 두뇌 유출까지 겹쳤다. 커리큘럼 개정 주기는

3~5년인데 AI 기술 변화 주기는 2.5년 - 구조적 미스매치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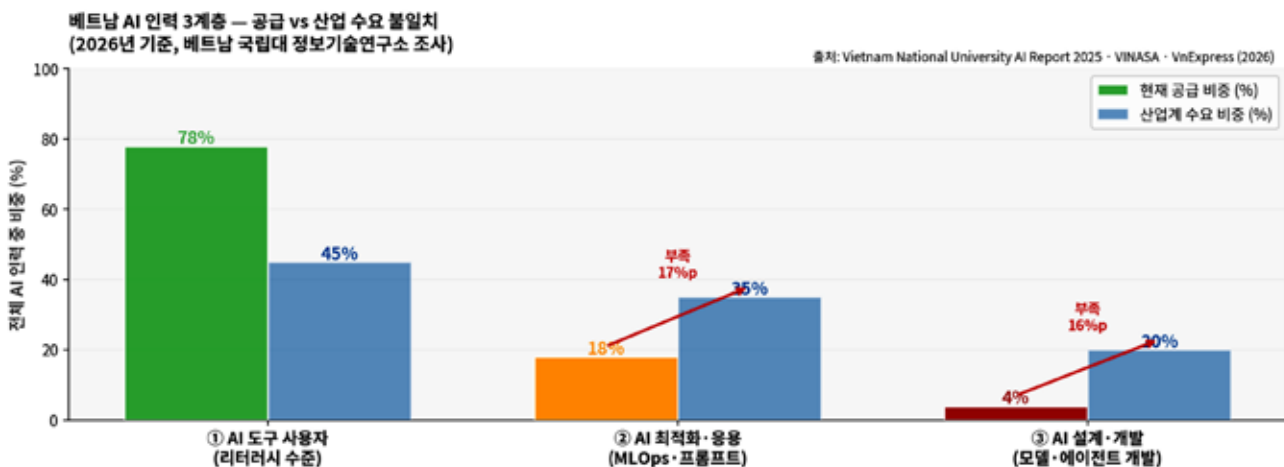
■ 그래도 희망은 있다 - 움직이는 긍정 신호들

절망만은 아니다. 베트남에는 AI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 분명히 있다.

첫째, 수학 교육 기반이 탄탄하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상위권을 유지하는 베트남의 수학 역량은 AI 개발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다. 둘째, FPT대학과 한국 가천대학이 반도체 공동학위(2+2년) 프로그램을 2026년 출범시켰다. IC 설계·패키징 특화 인력 양성의 첫 구체적 사례다. 셋째, 정부의 \$20억 IT 교육 투자로 2028년까지 전문 인력 20만 명 추가를 목표로 하며 FPT소프트웨어는 자체 5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했다. 넷째, 삼성·인텔·구글과의 대학 협약이 확대되면서 기업-대학 연계 실전 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다.

★ 편집부 진단 & 미래 방향 제시

지금 베트남 AI 교육은 "리터러시"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 - 이것이 2026년 베트남의 가장 큰 교육 공백이다. 필요한 방향 ①: 고교·대학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MLOps·AI 에이전트 설계 과목 신설
필요한 방향 ②: 삼성·인텔 한국 모델처럼 기업-대학-정부 3각 협력의 실전 훈련 의무화
필요한 방향 ③: 풀스택 AI가 아닌 IC설계·AI 응용·MLOps 특화 포지셔닝으로 선택과 집중
한국 기업 기회: AI 실무 교육 플랫폼·부트캠프·기업 아카데미 형태 베트남 진출이 유망하다.



▲ 베트남 AI 인력 3계층 - 공급 vs 산업 수요 불일치 (2026년 기준) | 출처: Vietnam National University AI Report • VINASA • VnExpress (2026)

[출처: Vietnam National University AI Report 2025 • VINASA • VnExpress International • Digital Watch Observatory • Vietnam.vn • NKKTech • VTI • Talentnet • HR1 Vietnam (2025~2026)]

길거리 국수 한 그릇에 별이 붙었다 미슐랭 베트남, 서민 음식의 왕좌를 인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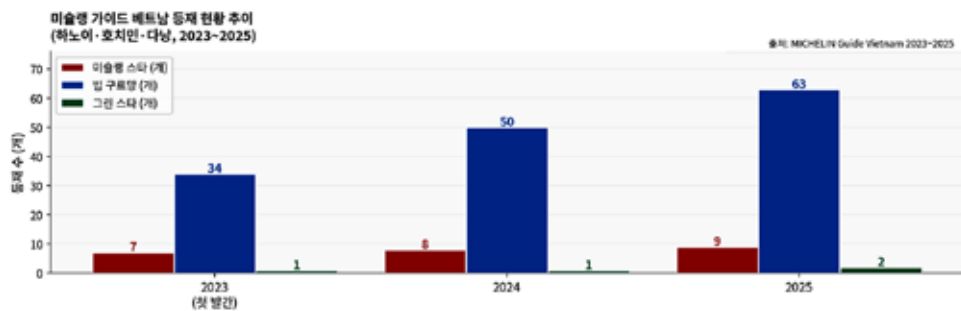
하노이 퍼 노점 밥 구르망 63개 • 반미는 아직 미등재 • 팜투테이블과 퓨전이 베트남 미식의 새 축



별 하나가 골목을 바꿨다.

2023년 베트남에 미슐랭 가이드가 처음 상륙했을 때, 업계는 고급 레스토랑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하노이 골목 노점에서 새벽 5시 반부터 퍼 한 그릇을 내는 식당이 밥 구르망(Bib Gourmand)을 받았고, 3년이 지난 2025년 기준 밥 구르망 63개 중 상당수가 거리 음식이다.

미슐랭이 베트남에서 한 일은 단순한 맛집 인증이 아니었다. "이 나라 음식은 값싸고 투박하다"는 편견을 공식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 미슐랭 가이드 베트남 등재 추이 (2023~2025)
| 출처: MICHELIN Guide Vietnam 2023~2025

■ 퍼 노점에 별이 붙은 날 - "밥 구르망의 나라" 베트남

밥 구르망은 "합리적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뜻하는 미슐랭의 서민 인증이다. 베트남은 이 부문에서 아시아 최고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노이 항바이 거리 "퍼보람"(Pho Bo Lam)은 새벽 5시 30분에 문을 열어 오전 중 재료가 소진되면 바로 닫는다. 선지·힘줄이 들어간 육수 한 냄비가 전부인 이 집이 밥 구르망을 받자 줄이 골목 밖까지 늘어났다. 2023년 34개에서 2025년 63개로 밥 구르망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미슐랭이 베트남 음식의 본질 — 재료의 신선함, 조리법의 단순함, 그 안에 담긴 수십 년 내공 — 을 진지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 반미는 왜 아직도 없나 - 미슐랭의 "빈자리" 논쟁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되고 CNN이 세계 25대 샌드위치로 선정한 반미가 미슐랭 베트남 어느 항목에도 없다. 푸드 전문가들이 이 역설을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미슐랭 심사위원들은 반미 노점이 "충분히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미가 품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평가 기준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즉 만드는 사람마다 다른 손맛이 오히려 반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업계는 "반미 장인 인증" 체계를 만들어 미슐랭 등재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 2026년 베트남 미식의 두 축 - 팜투테이블 & 세대 귀환 셰프

달랏의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저녁 메뉴를 구성하는 식당, 파리·도쿄에서 수련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 셰프의 레스토랑. 이 둘이 2026년 베트남 미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달랏은 베트남의 부엌이다. 연중 서늘한 기온 덕에 딸기·아티초크·아보카도·각종 허브가 자라는 이곳에서 팜투테이블 레스토랑들이 "달랏이 제철인 것만 낸다"는 원칙으로 미슐랭 그린 스타(지속가능성 부문)를 노리고 있다. 동시에, 파리·도쿄에서 요리를 배우고 귀국한 30대 셰프들이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베트남 재료 + 유럽·일본 기법"의 고급 퓨전 다이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푸아그라 대신 오리 간, 트러플 대신 버섯 발효액을 쓰며 "100% 베트남산"이라는 자부심을 접시 위에 담는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베트남 미슐랭 등재 식당

음식점	카테고리	특징
퍼보람 (Pho Bo Lam)	밥 구르망 / 하노이	새벽 5:30 오픈. 육수 힘줄·비지 전문. 항바이 거리 48번지.
퍼가 응 (Pho Ga Nguyet)	밥 구르망 / 하노이	닭 퍼 전문. 허벅지·날개·가슴 조합 선택. 심야 영업을 유명.
아난 사이공 (Anan Saigon)	미슐랭 1스타	모던 베트남 요리. 베트남 재료+현대 기법 융합. 호치민 District 1.
라마이 가든 (Lamai Garden)	그린 스타 / 하노이	팜투테이블·지속가능 베트남 요리. 계절 재료 전용 메뉴.
탐비 (Tam Vi)	밥 구르망 / 하노이	전통 길거리 음식 재현. 베트남에서 가장 저렴한 미슐랭.

편집부 평가.

미슐랭은 베트남에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고급화보다 정통성을, 값비싼 식재료보다 30년 손맛을 인정했다. 그것이 베트남 음식이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기도 하다.

HWASEUNG Enterprise

화승엔터프라이즈

당신이 아는 화승 당신이 몰랐던 화승

하나를 하고도 열을 드러내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열을 하고도 하나를 밝히기 어려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의 부족함을 연구하고
길을 닦기보다는 속과 뒤, 그리고 신뢰를 다져온 화승그룹

진심이 있는 기술은 깊이가 다릅니다
역사가 있는 혁신은 내일이 다릅니다

교민과 항상 함께하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

HWASEUNG
Enterprise

K-뷰티, 베트남을 접수하다

샤넬을 밀어낸 한국 화장품의 시장 점령 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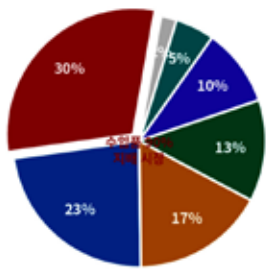
시장점유율 30% 1위 · 2022년 유럽 명품 역전 · 18~34세 여성 78% 주고객 · 글라스스킨·스키니멀리즘 트렌드 주도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 명품이 한국 화장품에 자리를 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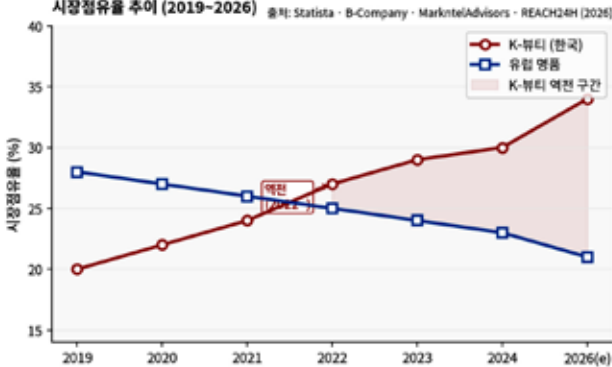
2019년만 해도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최강자는 로레알·랑콤·샤넬로 대표되는 유럽 명품이었다. 점유율 28%로 한국(20%)을 8%p 앞서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2년 역전이 일어났다. 2026년 K-뷰티는 30%로 선두를 달리고, 유럽 명품은 23%로 내려앉았다. 이 역전의 배경을 이해하면 베트남 뷰티 시장의 미래 전략이 보인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 규모	K-뷰티 시장점유율	주 고객 연령대
\$2.66B 2024년 기준 · 2030년 \$3.2B 전망	30% 수입품 1위 · 유럽 명품 역전	18~34세 전체 구매자의 78% 차지

베트남 화장품 국가별 시장점유율 (2026)



K-뷰티 vs 유럽 명품 시장점유율 추이 (2019~2026)



▶ 베트남 화장품 국가별 시장점유율 (2026) | K-뷰티 vs 유럽 명품 점유율 추이 | 출처: Statista · B-Company · MarkntelAdvisors · REACH24H (2026)

■ K-뷰티는 어떻게 명품을 이겼나 - 역전의 3대 엔진

가격도, 브랜드 헤리티지도 아니었다. K-뷰티가 유럽 명품을 이긴 무기는 "혁신 속도"와 "문화 파워"였다.

첫째, K-팝·K-드라마가 만든 "아이돌 피부 열망"이 화장품 소비를 끌어올렸다. 블랙핑크 제니의 피부 루틴, 뉴진스 하나의 스킨케어 영상이 틱톡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래니지·이니스프리·더페이스샵이 자동으로 검색됐다. 둘째, "글라스 스킨(유리 피부)"과 "스키니멀리즘(간편 루틴)" 트렌드가 K-뷰티 포뮬라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녹차씨 세럼·센텔라 아시아티카·살프물 성분은 베트남 소비자의 피부 고민(색소·모공·자외선)에 직격탄이었다. 셋째, 유럽 명품 대비 20~40% 저렴한 가격이 신혼 중산층의 "합리적 프리미엄" 수요와 맞았다.

■ 주 고객은 누구인가 - 18~34세 여성의 "뷰티 소비 혁명"



베트남 K-뷰티 소비의 78%는 18~34세 여성이 이끈다. 이들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피부 과학"을 공부하며 산다.

여성 25~45세의 95%가 스킨케어 제품을 매일 사용하며 월평균 74만 동(약 30달러)을 지출한다는 Q&Me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이들은 성분표를 직접 읽고 틱톡·유튜브의 "더마 닥터(피부과 전문의 콘텐츠)"를 참고해 구매를 결정한다. "클린 뷰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COSMOS 인증 유기농 제품 수요가 2023~2024년 42% 급증했다. 구매 채널은 쇼피·라자다 온라인이 주류이며, 가디언(Guardian)·삼미(Sammi)·소시올라(Sociola) 등 오프라인 뷰티 체인이 보조한다.

베트남 주요 K-뷰티 브랜드 현황

브랜드	그룹	주력 채널	포지셔닝
래니지 (Laneige)	아모레퍼시픽	백화점·쇼핑몰	프리미엄 · 수분 전문
이니스프리 (Innisfree)	아모레퍼시픽	직영·이커머스	자연성분 · 제주 브랜딩
더페이스샵 (TFS)	LG생활건강	전국 프랜차이즈	대중 · 오프라인 최강
오후 (OHUI)	LG생활건강	백화점 전용	럭셔리 · 안티에이징
코스알엑스 (COSRX)	독립	온라인 전용	성분 중심 · Z세대 타깃
에뛰드 (ETUDE)	아모레퍼시픽	쇼핑몰·틱톡	컬러메이크업 · 10~20대

★ K-뷰티 베트남 진출 전략 - 편집부 제언

- ① "성분 마케팅" 필수: 베트남 소비자는 성분표를 읽는다. 녹차·센텔라·살프물 등 로컬 공감 성분을 전면에 세워라.
- ② TikTok Shop 선점: 구매 결정의 40%가 SNS에서 이루어진다. 현지 인플루언서(Chau Bui급) 협업이 광고보다 효과적이다.
- ③ "클린 뷰티" 인증 획득: COSMOS 등 국제 유

- 기능 인증은 프리미엄 정당화 도구이자 중산층 신뢰 확보의 핵심이다.
- ④ 온라인 우선, 오프라인 거점 전략: 쇼피·라자다로 인지도를 쌓고 가디언·삼미 체인으로 체험 접점을 만들어라.
 - ⑤ 중소기업 기회: 대형 로드샵이 아닌 "성분 전문 D2C 브랜드" 모델이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출처: Statista · B-Company Japan · MarkntelAdvisors · REACH24H · US Trade.gov · Astute Analytica · Vietnam Beauty Trends Report (2024~2026)]

Healing in Nature – Vol. 3

신이 숨겨둔 물 - 김보이 온천과 무엥족의 천연 광천수 치유

하노이에서 2시간 • 34~36°C 천연 광천수 • 칼슘·리튬·라듐 함유 • 수천 년 무엥족의 치유 성지



이 물에는 이름이 있다. "신선의 우물(Fairy Water)".

베트남 북서부 호아빈성 김보이(Kim Bôi) 지구. 해발 수백 미터 산악지대에서 34~36°C의 따뜻한 물이 소리 없이, 쉬지 않고 솟아오른다. 무엥(Muong)족은 이 물을 수천 년 전부터 "땅이 내어주는 약"으로 여겨왔다. 20세기 초 이 지역을 조사한 프랑스 지질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광천수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현재 김보이 광천수는 음용 기준을 충족해 병입 판매되고 있으며, 성분이 유럽 유명 브랜드 광천수와 유사하다는 과학 분석 결과도 있다. 하노이에서 차로 2시간이면 닿는 이 산속에서, 도시의 피로를 몸 깊숙이 씻어내는 치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① 김보이 광천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 성분과 효능

온도	34~36°C - 체온에 가장 가까운 자연 온도. 오래 담가도 무리 없이 세포 깊숙이 미네랄이 침투한다.
핵심 성분	중탄산황산칼슘마그네슘(Bicarbonate Sulphate Ca-Mg) + 칼슘·리튬·라듐 - 유럽 고급 광천수와 유사한 구성.
음용 효과	소화기 질환·위장 문제 완화. 칼슘이 풍부해 뼈·치아 강화. 리튬 성분은 신경 안정 작용.
입욕 효과	관절염·류머티즘 완화. 혈압 조절. 피부 미용·각질 제거. 근육 이완·만성 피로 해소.
수원 깊이	100m 이상 지하. 외부 오염원과 완전히 분리된 자연 여과 과정을 거쳐 용출.
인증 현황	베트남 보건부 음용·입욕 기준 공식 충족. 무취·무색의 청정 광천수로 분류.

② 김보이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치유 체험

● ① 천연 광천수 입욕 - 치유의 핵심

2개의 실내 온천 대형 풀과 1인 월풀 욕조(8인용 개인 탕)에서 미네랄 수에 몸을 맡긴다.

물은 매일 교체되어 항상 신선하게 유지된다. 34~36°C의 온도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과 근육 깊은 곳까지 온기를 전달한다. 계절로는 가을·겨울·봄이 가장 좋다. 7~8월 우기는 산사태 위험으로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다.

● ② 미네랄 머드 베스 - 피부와 관절을 동시에

지하 100m 이상에서 채취한 미네랄 진흙으로 전신을 감싸는 머드 베스는 김보이의 두 번째 치유 의식이다.

영양이 풍부한 진흙층이 피부를 이완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관절 주변 조직에 직접 작용한다. 5~7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머드 탱크에서 가족이 나란히 몸을 묻는 장면은 김보이만의 독특한 풍경이다. 머드 베스 후 광천수로 헹구면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다.

● ③ 무엥족 문화 체험 - 치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광천수 입욕 외에 김보이가 제공하는 가장 독특한 경험은 무엥족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야간 모닥불 주변에서 전통 징(Gong) 연주를 감상하고, 대나무 통에 담긴 증류주를 마시며 산악 소수민족의 밤을 함께한다. 오렌지 과수원·옥수수밭·논두렁을 따라 자전거로 돌아보거나, 뱀강(Bôi River)변을 거닐며 인근 무엥 마을 장인을 방문하는 것도 권한다. 몸을 씻는 것에서 시작해 마음까지 비워지는 것이 김보이 치유의 완성이다.



③ 추천 숙소 & 방문 실전 정보

세레나 리조트 (Serena Resort)	보이강 옆 4성급. 무엥 전통 건축(초가·목재·대나무). 155개 객실. 광천수 풀 보유. 하노이에서 차 2시간.
비너스지티 (Venusgiti)	유럽식 건축+로마 수치료법 결합. 빈동 마을 소재. 럭셔리 스파+광천수 전문. "요정의 우물" 체험 특화.
김보이 온천 공원	입장료 18만 동(~7,000원). 공용 실내 대형 풀+개인 월풀 탕 포함. 머드 베스 별도. 당일 치기 가능.
하노이 출발	하노이 옌응이아미딘 버스터미널 → 호아빈 하차 → 택시·싸움 30분. 자가용 국도16호선 약 2시간.
최적 방문 시기	9월~익년 6월(건기). 7~8월 우기·홍수·산사태 위험으로 방문 자제.
주변 연계 코스	귀로에 호아빈 수력발전 호수·무엥 문화박물관 방문 권장.

김보이의 물은 빠르지 않다.

서두르지 않고 34°C의 온기로 조용히 몸속으로 스며들며 쌓인 것들을 천천히 풀어낸다. 한 세기 전 프랑스인이 찾아왔고, 수천 년 무엥족이 지켜온 이 물의 힘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노이의 번잡함에서 단 두 시간 거리에 이런 고요가 있다는 것이 김보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다음 호 예고 • Vol. 4 - 달랏(Da Lat) 피톤치드 삼림욕, "베트남의 스위스"에서 찾는 숲의 치유

[출처: Vietnam National Administration of Tourism • Visit Vietnam.org.vn • Asia King Travel • Venusgiti Hot Spring Resort • Serena Resort Kim Boi • Lucky Hotel Hanoi (2026)]

천년 나무가 기다리는 숲 꼭프엉, 베트남 최초 국립공원의 초록 심장

하노이 120km • 22,000헥타르 열대 우림 • 308종 조류 • 1962년 지정 • 세계여행대상 아시아 최고 국립공원 5연속 수상

베트남에 국립공원이 처음 생긴 날, 그 땅은 꼭프엉이었다

1962년 호치민 주석이 직접 지정한 베트남 최초의 국립공원. 닌빈성 노 군에 자리한 꼭프엉(Cúc Phương)은 하노이에서 남서쪽으로 120km, 차로 2시간 30분이면 닿는 거리에 있다. 22,000헥타르 규모의 열대 우림은 64년이 지난 지금도 손때가 묻지 않은 채 숨 쉬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세계여행대상(World Travel Awards) "아시아 최고 국립공원"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이 숲에는 천 년을 산 나무가 있고, 멸종 위기 영장류를 구조하는 센터가 있으며, 선사시대 인류가 7,500년 전 남긴 동굴이 있다.

① 꼭프엉을 알기 위한 핵심 데이터

위치	닌빈성 노판군- 하노이 남서 120km, 차로 약 2시간 30분
면적	22,200헥타르 (3개 성 걸침: 닌빈·호아빈·탄호아)
지정 연도	1962년 - 베트남 헌정 최초 국립공원
기후	연평균 21~28° C. 최적 방문: 11~4월(건기). 4~5월은 나비 시즌(수백만 마리 출현)
입장료	성인 50,000 VND/어린이 20,000 VND
수상 이력	세계여행대상 아시아 최고 국립공원 5연속(2019~2023)

② 꼭프엉에서만 할 수 있는 4가지

- ① 천 년 나무와의 조우 - "쫄쫄 트리" 트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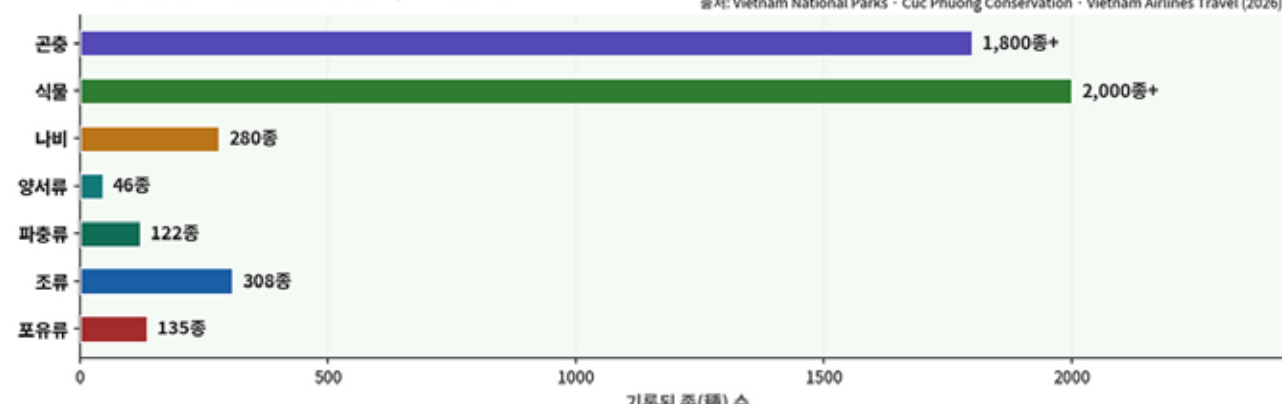
공원 가장 깊숙한 곳, 수령 1,000년 이상의 거목(Tetrameles nudiflora)까지 걸어간다.

편도 6km, 4시간 소요의 이 트레킹은 꼭프엉 방문의 하이라이트다. 울창한 캐노피 아래 석회암 지형을 따라 걷는 길은 군데군데 쏟아지는 빛의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목적지인 나무는 직경 25m의 수관을 펼치고 서 있다. 그 앞에 서면 "나무가 인간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실감 난다. 2026년부터 40종 이상의 주요 수종 설명 안내판이 트레일 전체에 설치됐다.

- ② 멸종위기 영장류 구조센터 — 자연보전의 현장



꼭프엉 국립공원 생태 다양성 — 베트남 최초 국립공원의 기록 (22,000헥타르)



▲ 꼭프엉 국립공원 생태 다양성 — 서식 종별 현황 | 출처: Vietnam National Parks • Cuc Phuong Conservation Project (2026)

약 150마리의 멸종위기 영장류(랑구르·긴팔원숭이·로리스)가 보호되고 있는 구조센터.

밀렵·불법 거래에서 구조된 개체들이 재활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바로 옆 거북이 보전센터에서는 2024년 세계 25대 멸종위기종 중 하나인 베트남 연못 거북 30마리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곳을 걷다 보면 "여행이 보전 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 ③ 야간 사파리 - 낮과 전혀 다른 숲의 얼굴



2023년 시작해 2025년 확대된 야간 투어는 꼭프엉의 숨겨진 생명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전문 레인저의 안내로 소규모 그룹이 숲 속으로 들어간다. 사향고양이(civet)·날다람쥐·회귀 양서류들이 낮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또한 마크 호수(Mac Lake)와 옌팡 호수에서는 일출 전 5시 30분~7시 사이 가이드 무음 카약 투어가 운영되며, 이 시간대가 야생동물 관찰 최적 시간이다.

- ④ 선사시대 동굴과 무영족 마을 - 자연 너머의 이야기

공원 안에는 7,500년 전 인류가 생활한 흔적이 남아 있는 선사 동굴이 있다.

220계단을 올라 도달하는 동굴에서 당시의 도구와 무덤 유적을 직접 볼 수 있다. 공원 내 무영(Muong)족 마을은 수백 년간 숲과 함께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청년 무영족의 전통 타악기 공연은 숲속 모닥불 옆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 숲이 단순한 자연 보호구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의 집임을 실감하게 된다.

닌빈과 연계하면 더 풍성해진다.

공원에서 45km 거리의 닌빈 구시가지에는 탐꼭(Tam Coc)·짱안(Trang An·UNESCO 세계유산)·호아르(Hoa Lu) 고도가 있다. "육지의 하롱베이"로 불리는 탐꼭의 석회암 카르스트 사이를 배로 유유히 지나고, 꼭프엉의 우림을 걸은 뒤 닌빈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2박 3일 코스가 북부 베트남 그린 저니의 정석으로 꼽힌다.

다음 호 예고 • Vol. 4 - 까띠엔(Cat Tien) 국립공원 - 호치민 북쪽 3시간, 야생 긴팔원숭이와 함께하는 숲의 새벽

[출처: Vietnam National Parks • Cuc Phuong Conservation Project • Hanoi Local Tour • Vietnam Airlines Travel Guide • Viator • Origin Vietnam (2026)]

거품 한 겹이 세계를 바꿨다 에그커피와 베트남 카페 문화의 진화

하노이 골목 카페 • Taste Atlas 세계 8위 커피 음료 • 2030년 커피 시장 \$43억 전망 • 소금커피•코코넛커피까지 — 베트남이 커피로 세계에 말 걸다

베트남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커피와 함께 산다.

새벽 5시 반, 하노이 골목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조그만 금속 드리퍼(핀)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베트남 커피 문화의 본질이다. 서두르지 않고, 흘러내리는 시간을 즐기는 것.

세계 2위 커피 생산국 베트남은 지금 단순한 원두 공급자에서 "독창적 커피 문화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에그커피는 Taste Atlas 세계 63대 커피 음료 중 8위에 올랐고, 코코넛커피•소금커피•박씨우는 틱톡을 타고 전 세계 Z세대의 버킷리스트가 됐다.

Cà Phê Trứng 에그커피 - 달걀 노른자 거품 커피
하노이 발원•전국 확산•세계 8위 커피 음료(Taste Atlas)



1946년 우유가 귀하던 시절,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바텐더 구웬 반 잔이 달걀 노른자로 우유를 대체해 만든 것이 시초다.

생산 방식은 간단하다. 달걀 노른자•연유•설탕을 전동 거품기로 10분 이상 저어 크림 질감의 거품을 만든 뒤 진한 로부스타 에스프레소 위에 얹는다. 찻잔을 뜨거운 물그릇 위에 올려 서빙하는 것이 전통 방식이다. 한 모금 마시면 진한 커피 쓴맛과 달콤한 크림이 충돌했다가 하나로 녹아든다. "마시는 티라미수"라는 별명이 여기서 나왔다. 가격은 3만 5,000~5만 동(약 1,400~2,000원). 원조 카페 장(Cà Phê Trứng Giảng)은 1946년부터 지금까지 하노이 같은 자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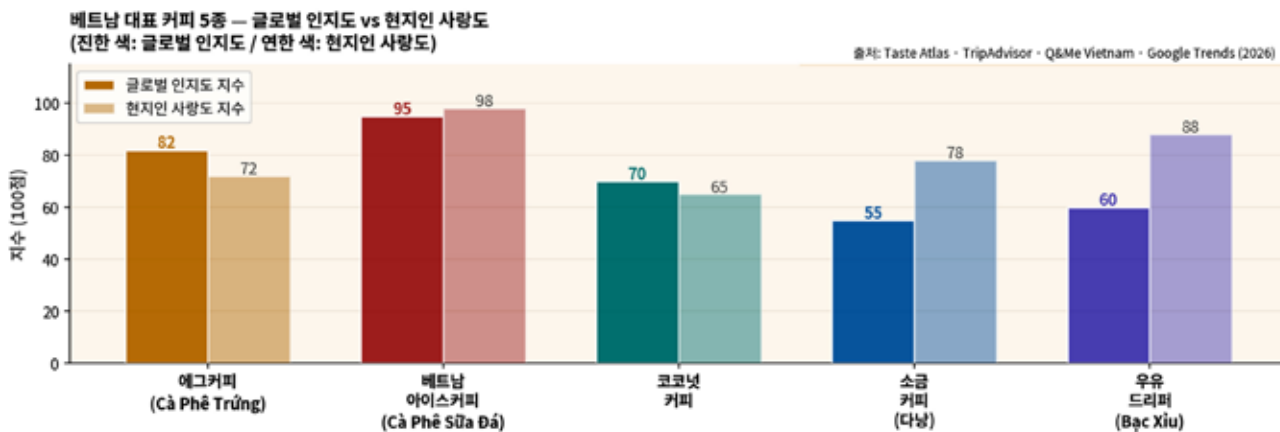
Cà Phê Sữa Đá 베트남 아이스크림 커피 - 연유 아이스 드립 커피

전국 어디서나•현지인 사랑도 98점•세계적 베스트셀러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다. 진한 로부스타 원두를 핀 드리퍼로 천천히 내린 뒤 연유와 얼음을 섞는다.

설탕이 아닌 연유를 쓰는 것이 핵심이다. 연유가 쓴맛을 중화하면서 동시에 묵직한 단맛과 크림리한 질감을 더한다. 길거리 카페에서는 500ml 플라스틱 컵에 가득 담아 2만~3만 동(약 800~1,200원)에 판다. 이



▲ 베트남 대표 커피 5종 — 글로벌 인지도 vs 현지인 사랑도 | 출처: Taste Atlas • TripAdvisor • Q&Me Vietnam • Google Trends (2026)

한 잔이 베트남 카페 문화의 정수다. 쇼피푸드•그램으로도 하루 수백만 잔이 배달된다.

Cà Phê Muối 소금커피 - 다낭•후에 발 소금 크림 커피

다낭•후에 발원 • 틱톡 바이럴 2024~2026 •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맛있는 커피"



"소금을 커피에 넣는다고?" -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지만 한 모금 마시면 이해가 된다.

소금•연유•크림을 함께 거품 내 에스프레소 위에 얹는다. 소량의 소금은 단맛을 강화하고 쓴맛을 억제하는 미각 착시를 일으킨다. 결과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복합적인 맛이다. 2024년 틱톡에서 "Try Vietnamese Salt Coffee Challenge"가 바이럴되면서 전 세계 외국인 관광객의 다낭 방문 필수 코스가 됐다. 다낭 현지 카페에서 가격은 3만~4만 동(약 1,200~1,600원).

Cà Phê Cốt Dừa 코코넛커피-코코넛밀크 아이스 커피

호치민 발원 • 남부 특산 • 해외 관광객 선호도 급상승



남부의 풍성한 코코넛 문화가 커피와 만났다. 로부스타 에스프레소 위에 코코넛밀크를 얹거나 블렌딩해 서빙한다.

코코넛의 고소함과 커피의 쓴맛이 열대 과일 향으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경험이다. 얼음을 갈아 스무디 형태로 만든 버전도 있어 "마시는 디저트"에 가깝다. 호치민 콩카페(Cộng Cà Phê)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퍼뜨린 코코넛 스무디 라테가 이 트렌드를 전국화했다. 콩카페는 현재 전국 70개 이상 매장과 한국 서울 홍대•강남 매장까지 진출해 있다.

지금 찾아가야 할 카페 - 도시별 추천

카페	도시•특징	추천 메뉴
카페 장 (Giàng)	하노이/에그커피 원조 1946년 창업	에그커피 핫에그커피아이스
콩카페 (Cộng)	전국 70개+ / 인민군 빈티지 인테리어	코코넛 스무디 라테
리스 카페 (The Note)	호이안 / 천장이 메모지로 덮인 카페	하노이 드립 커피+에그커피
호이안 로스터스	호이안 / 스페셜티 원두 로스팅	싱글오리진 아라비카 핸드 드립
미스 리 카페22	다낭 / 소금커피 발원지	소금 크림 라테•베트남 드립

베트남 커피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완성된다.

핀 드리퍼에서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좁은 골목 플라스틱 의자에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안에 베트남 카페 문화의 전부가 있다. 에그커피•소금커피•코코넛커피 - 세계가 이제 그 기다림의 맛을 배우고 있다.

다음 호 예고 • Vol. 3 - 베트남 스트리트 푸드의 아침 - 반미•퍼•껌땀 현지인의 하루 첫 끼

[출처: Taste Atlas • TripAdvisor • Q&Me Vietnam • Google Trends • Culinary Vietnam • VnExpress • Vietnam Coffee Association (2026)]



사파마 힐링캠프
SAFAMA HEALING CAMP

14세기부터 19세기 명화
숲속의 야외오픈 프로젝트

모나리자
에서
르누아르
까지

2026. February. 14

2026. August. 14

세계명화 대전

서양 미술사 600년 레플리카 전을 엿니다

